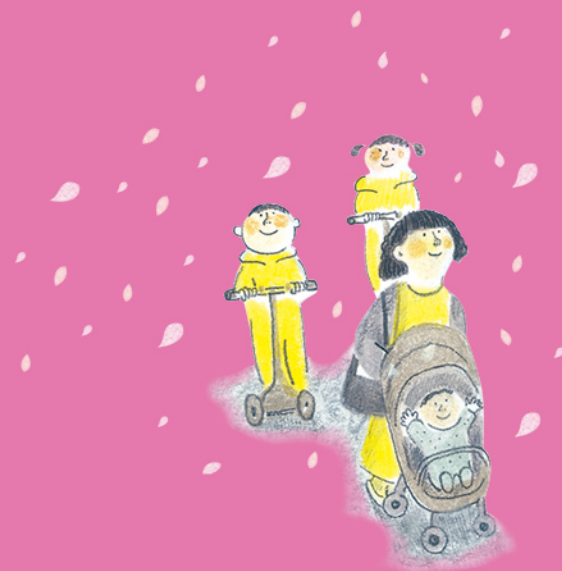




책읽는곰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에게
무엇이든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책을 만듭니다.

비매미



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8
전화 02-332-2672 팩스 02-338-2672
홈페이지 www.bearbooks.co.kr
SNS Instagram @bearbooks_publishers



책놀이책

책읽는곰



엄마 셋 도시락 셋

국지승 그림책 | 책읽는곰 펴냄

탄탄 건설 차장님 지선 씨도, 프리랜서 작가님 다영 씨도,
세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미영 씨도,
평소보다 훨씬 바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.
오늘은 아이들이 봄 소풍을 가는 날이거든요.
세 엄마들은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느라,
막상 자기 곁에 다가온 봄기운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.
분주한 하루가 저물어 갈 즈음, 아이가 내미는 꽃 한 송이에,
빈 도시락과 함께 돌아온 꽃잎에 담긴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,
비로소 온 천지에 가득한 꽃향기가 엄마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스며듭니다.
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일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꼭 같은
세 엄마들의 이야기가 설렘 가득한 봄날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.



국지승 작가와 작품을 소개합니다

504호에 사는 정혁이, 선아 엄마이자 그림책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도시락은 잘 못 만들고, 깜빡하기는 무척 잘합니다.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뒤 그림책 작가로 활동해 왔으며, 1인 출판사 문문북스(moonmoonbooks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아 보고자, 《엄마 셋 도시락 셋》, 《아빠 셋 꽃다발 셋》 연작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. 그 밖에 《앗! 따끔!》, 《있는 그대로가 좋아》를 쓰고 그렸고, 〈아기 다람쥐 두리〉 시리즈에 그림을 그렸으며, 직접 기획하고 꾸민 《수리수리 동물 카드》를 문문북스에서 펴내기도 했습니다.



아빠 셋 꽃다발 셋

국지승 그림책

세 아빠의 평범하고도
특별한 하루를 담은 그림책

세 아빠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를 담은 그림책

탄탄 건설 김 과장님이 만원버스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.
튼튼 소아과 김 원장님이 꽉 막히는 길을 운전해 병원에 갑니다.
오케이 택배 김 기사님은 벌써 트럭 한 가득 택배 상자를 실었습니다.
어제처럼 평범한 아침, 어제보다 조금 더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
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이사이, 세 아빠들은 짬을 내어 꽃다발을 준비합니다.
누구에게 주려고 준비한 꽃다발일까요?
평범한 아빠들의 아주 특별한 하루가 펼쳐집니다.

그림책을 보기 전에

1. 책 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? 표지의 그림을 보고, 어떤 계절인지 추측해 보세요.
2. 책 표지에 그려진 세 명의 등장인물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?
3. 책 제목에서 가리키는 ‘도시락’은 누가,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?

그림책을 보고 나서

1. 세 명의 등장인물은 각각 누구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나요?
2. 주인공들이 저마다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은 무엇일까요?
3. 가족들이 만들어 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간 경험이 있나요?
그 도시락을 먹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?
4. 가족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준다면 어떤 음식을 해 주고 싶나요?



책놀이 1 엄마 셋의 속마음은?

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어요.

세 명의 주인공은 각각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

자유롭게 상상해서 빈칸에 써 보세요.



세 명의 엄마가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어요.

세 개의 도시락에는 각각 어떤 음식이 들어 있을까요?

세 엄마를 잘 관찰해 보고, 도시락에 들어 있는 음식 이름을 써 보세요.



첫 번째 도시락:



두 번째 도시락:



세 번째 도시락:

책놀이 3 소풍을 주제로 시 짓기

오늘은 유치원에서 봄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.

소풍을 주제로 왼쪽에는 삼행시를 짓고, 오른쪽에는 시를 만들어서 써 보세요.

소풍을 갈 때의 설레는 마음과 소풍을 즐기는 순간의 기분을 담아 보아요.



제목:

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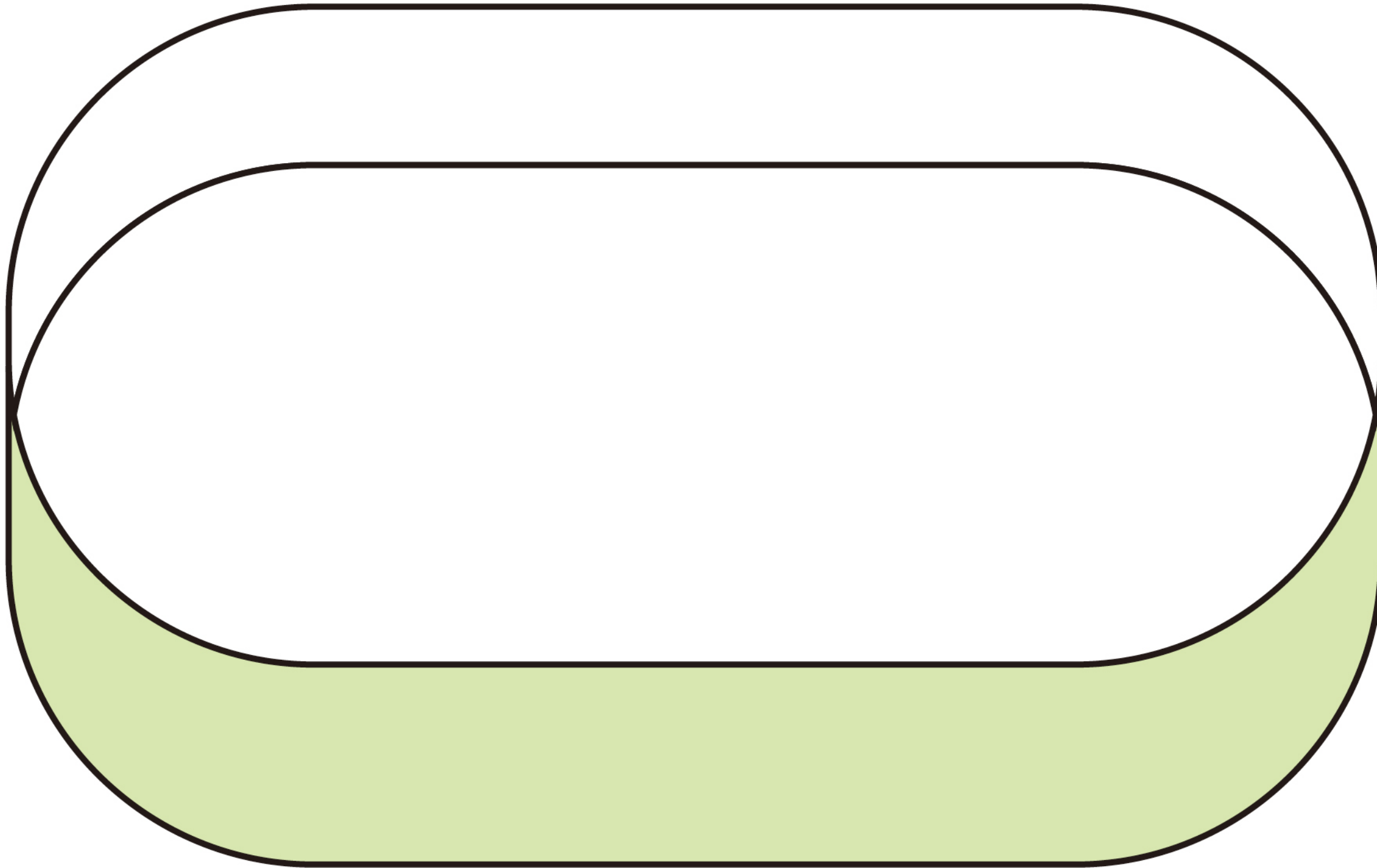
소

풍



책놀이 4 나만의 도시락을 만들어요!

소풍 때 내가 먹을 도시락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가져가고 싶나요?
아래에 있는 빈 도시락 통에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그려서
나만의 맛있는 소풍 도시락을 완성해 보세요.



빈칸에 각 주인공의 이름을 적고, 각자 보낸 하루 일과를 알맞게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.



책놀이 6 풍경에 숨어 있는 봄꽃 찾기

봄이 오면 피어나는 꽃들이 있어요.

그림책 속에 어떤 봄꽃이 나오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.

그림책에서 발견한 봄꽃들의 이름을 표에서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해 보세요.

개나리

무궁화

코스모스

은방울꽃

수국

해바라기

벚꽃

국화

라일락

백합

장미

목련



책놀이 7 다영 씨와 준이의 마음을 느껴요

봄 소풍을 다녀온 준이가 엄마를 위해 꽃을 선물했어요.
꽃을 선물한 준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꽃을 받은 다영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
나라면 어땠을지 상상하면서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.



책놀이 8 엄마에게 드리는 상

맛있는 봄 소풍 도시락을 준비한 엄마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나요?
재미있는 상 이름을 지어 붙이고,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주는 이유도 써 보세요.

상

수상자:

20 년 월 일

사랑하는 올림

책놀이 2



첫 번째 도시락: 김밥



두 번째 도시락: 꼬마 김밥



세 번째 도시락: 샌드위치

책놀이 5



책놀이 6

개나리 무궁화 코스모스
은방울꽃 수국 해바라기

벚꽃 국화 라일락
백합 장미 목련